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중국 부동산 단속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 ◇ (초점)-외국계금융사, 은행·증권 통합 트레이딩헤드 세우나
- ◇ (초점)-외화예금 첫 1 천억달러 돌파..외환수급에 미칠 영향과 함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코로나 재확산 소식이 뒤섞인 뒤송송한 분위기 속에 뉴욕 록펠러센터에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로이터/에두아르도 무노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19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85.3	-0.5%	-8.4%	+6.5%	유로	1.1288	-1.4%	-7.6%	+8.9%
100엔 대비	1,041.2	-0.6%	1.0%	+1.1%	엔	113.98	-0.1%	-9.4%	+5.2%
유로 대비	1,340.0	0.8%	-1.0%	-2.3%	위안	6.3851	0.1%	2.2%	+6.7%
위안 대비	185.83	-0.5%	-10.5%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5,601.98	-1.4%	16.3%	+7.2%
코스피	2,971.02	0.1%	3.4%	+30.8%	나스닥	16,057.44	1.2%	24.6%	+43.6%
코스닥	1,041.92	3.3%	7.6%	+44.6%	S&P500	4,697.96	0.3%	25.1%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48.55	-0.9%	-2.1%	+19.8%
국고채 3Y	1.966%	-0.2bp	99.0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2.188%	2.2bp	85.3bp	-14.5bp	미국채 2Y	0.513%	-0.5bp	39.2bp	-144.0bp
국고채 10Y	2.372%	2.8bp	65.9bp	+3.0bp	미국채 10Y	1.548%	-2.2bp	63.6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5.94	-6.0%	56.5%	-20.5%	한국 5Y	18.8bp	-0.1bp	-3.2bp	+0.1bp
금(현물)	1,844.60	-1.0%	-2.8%	+25.0%	일본 5Y	17.6bp	0.1bp	2.6bp	-4.5bp
TR상품지수	3,318.54	0.6%	23.8%	+7.8%	중국 5Y	48.9bp	-4.0bp	20.8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1월 22일(월)>

- 관세청, 11월 1-20일 수출입 동향
- 기재부, 부총리 현안사항 점검회의(주재)(비공개)(14:30)

<23일(화)>

- 한은,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금감원, 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
- 한은,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12: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10:30)

<24일(수)>

- 한은,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한은,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통계청, 9월 인구동향 ·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5일(목)>

- 한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
- 한은, 경제전망(2021.11월)(13:30) · 설명회(14:00)
- 기재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17:00)

<26일(금)>

- 한은,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1월 22일(월)>

- 중국 11월 대출우대금리 (10:30)
- 미국 10월 전미활동지수 (22:30)
- 유로존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자정)
- 미국 10월 기존주택 판매 (자정)

<23일(화)>

- 유로존 11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1월 서비스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22:30)
- 미국 11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 일본 휴장

<24일(수)>

- 일본 11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뉴질랜드 연방은행, 통화정책 성명 · 기자회견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0월 건축허가 (22:00)
- 미국 3분기 기업이익 잠정치 · GDP 수정치 (22:30)
- 미국 10월 내구재주문 · 도소매 재고(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0월 개인소득 · PCE 물가지수 · 신규주택판매 (자정)
-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자정)

<25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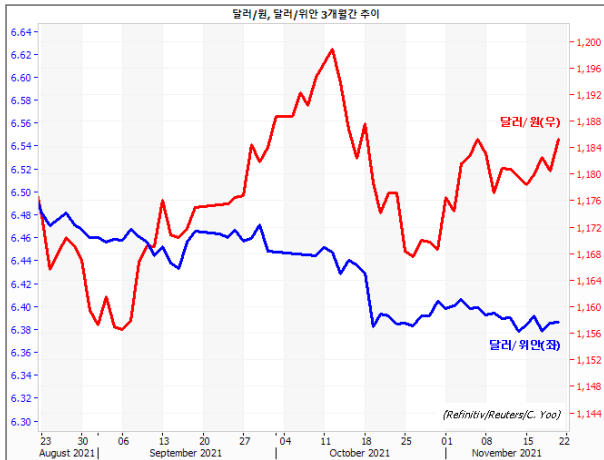
- FOMC, 11월 2-3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4:00)
- 미국 휴장

<26일(금)>

- 일본 11월 도쿄 CPI (08:30)
- 유로존 10월 총 유동성(M3) 증가율 · 가계대출 (18: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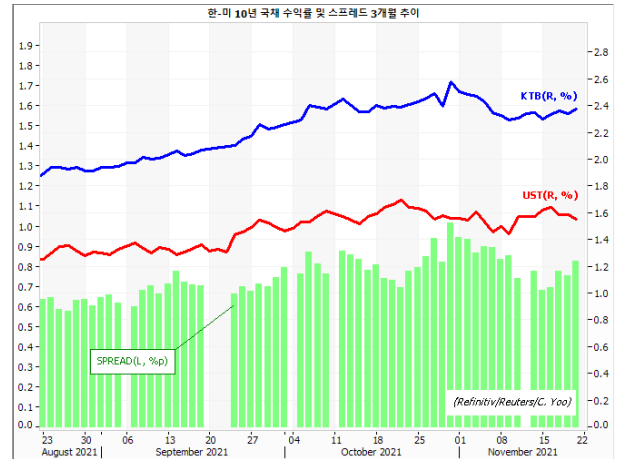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확산 여부를 살피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회의를 소화하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75-1196 원이다.
-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지만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 코로나의 시장 영향력이 이전보다 압도적이진 않지만, 안전자산 선호로 강달러 모멘텀이 확산될 경우, 원화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 지난 주말 역외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1190 원 대로 이미 튀어 올랐다.
- 지난주처럼 삼성전자 배당 억송금 등과 같은 수급 변수가 불쑥 튀어나오면 환율은 상승압력을 유지한 채 1190 원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 이에 이번 주 달러/원은 잦은 변동성 장세에 노출되며 때때로 거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와 부합한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 반응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 다만, 향후 한은의 금리 정책 스탠스에 대한 시장 평가가 후속 흐름을 결정지을 수는 있다.
- 한편 25일(현지시간) 나올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결과에 따른 대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도 챙겨봐야 할 듯하다.
- 22일 개장 전에는 이달 21일까지 한국 수출입 잠정치 발표된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시장은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회의 결과를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의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교체 여부도 큰 재료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 국내 채권시장의 최대 이슈는 금통위 회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예고한 대로 금통위는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 관건은 불확실성이다. 이 총재가 최근의 요소수 수급 대란, 공급망 교란 등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을 얼마나 강조할지가 중요해 보인다.
- 불확실성에 대한 이 총재의 발언 강도에 따라 내년 1월 연속 인상,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도 시선을 끈다.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재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지만,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새롭게 연준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전망치 대비 1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초과 세수 중 일부가 국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채권시장에 매수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그래프/분석)-중국이 부동산 단속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베이징, 11 월 19 일 (로이터) - 중국 정부가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기세력과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단속함에 따라 신규 주택 가격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중국 부동산 부문이 올해 급격히 약화됐다.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당국이 부동산 부문 안정화 조치를 내놓으리라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이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당국은 부채 리스크, 생활비 압박, 주택 소유주들의 우려, 경제 성장 촉진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부채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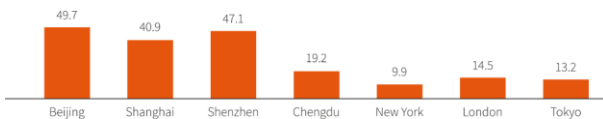
당국의 단속을 이끈 주요 요인은 금융 리스크 확대 우려였다.

중국 부동산 부문은 신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는 33조 5000억위안(5조달러)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한다.

작년 당국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 단기부채 대비 현금 비율 등 부동산 규제 '3대 마지노선'을 공개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현금 부족을 겪고 있다.

Cost of housing in China's big cities far outstrips incomes

Years of saving at an average local salary that would be required to afford an average apartment



Note: Data shows the ratio of median apartment prices to median familial disposable income
Source: Crowdsourced statistics provider Numbeo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역외 채권 상환이 미이행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주식과 채권은 급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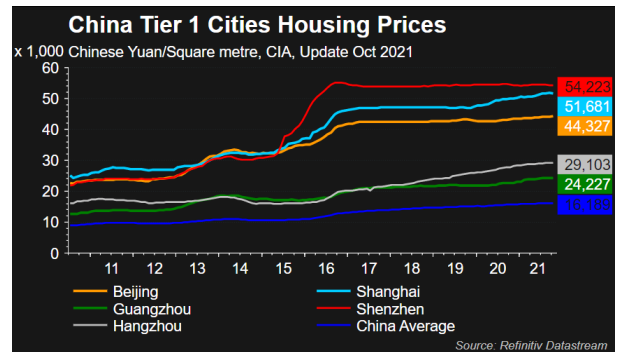
恒大(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경우 매번 마감기간이 다 되어 밀린 이자를 지급해 디폴트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 생활비 압박

당국은 또한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모기지 대출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 주요 도시의 일부 부동산 가격은 지역 평균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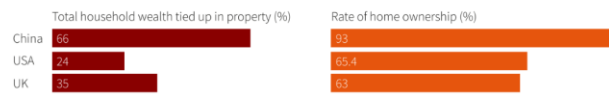
베이징, 상하이, 또는 선전 등 거대 도시에서 일반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수십 년을 저축해야 한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불평등을 줄이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생활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China's households put their wealth in real estate



Source: JP Morgan Asset Management,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hina Household Wealth Survey Report 2019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은 9월보다 평균 0.2% 하락해, 2015년 이후 첫 하락을 기록했다.

◆ 주택 소유주들의 이익

전반적으로 관련 주택 소유주 수백만 명의 이익이 부동산 부문을 과도하게 냉각시키는 정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중국 14억 인구의 재산 약 3분의 2가 주거용 부동산에 묶여 있다. 도시 지역 가계 90%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China's real estate sector has global weight

Rough breakdown of contributions to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from:

● China: real estate and related industries (~4.5%) ● China: other sectors (~13.5%) ● Rest of world (~82%)



Note: Different sectors' contributions to growth vary over time
Source: Analyst estimate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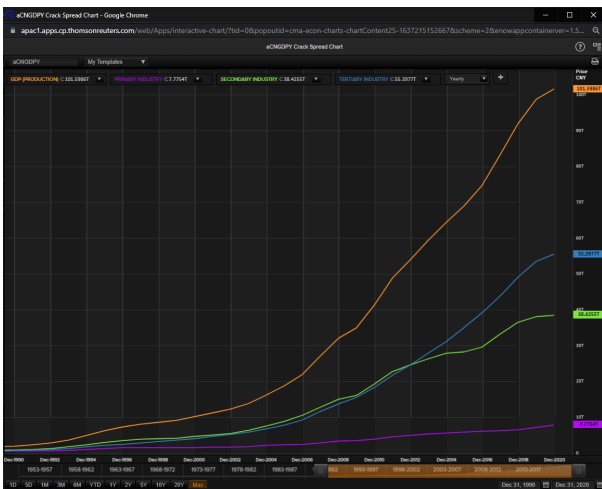
급격한 경기 둔화로 인해 시장 급락과 사회적 불안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중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경제 성장 우려

경제 성장 우려 역시 규제 당국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 추정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 산업은 중국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철강, 시멘트 등 재료에 대한 수요도 이끌고 있다.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은 1분기 18.3%에서 3분기 4.9%에 그치는 등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더 크게 둔화될 경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부문 경기 둔화가 2014~2015년의 패턴을 따른다면, 내년 4분기 급속, 철광석 가격 급락과 함께 글로벌 GDP 성장률은 0.7%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경기 둔화가 더 심각할 경우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3년 1분기 1.0%로 저점을 기록하고 세계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상품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외국계금융사, 은행·증권 통합 트레이딩헤드 세우나..정보교류 제한 가이드라인 관련

서울, 11월 16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 5월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 교류 차단 제도(차이니스월)를 폐지한 이후 외국계 금융사들도 빠르게 새로운 조직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로 갈라져 있는 세일즈, 트레이딩 부서 등의 보고 라인을 일원화할 수 있는냐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나가는 부분에 업계의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차이니스월 폐지에 외국계 금융사들 조직개편 법적 기반 논의

업계에 따르면 현재 10여개 외국계 금융사들은 차이니스월 폐지에 따른 내부통제 지침 마련을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차이니스월은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금융투자 업무 간의 정보 제공, 임직원 겸직, 사무 공간·전산 설비 등의 공동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차이니스월은 개별 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괄적인 규제체계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

고, 결국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개별회사가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 운영하도록 했다.

차이니즈월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한국 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수년 동안 주장해 왔던 외국계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반색할 만한 조치였다. 다만 '안 되는 것 빼곤 다 되는' 새로운 규제환경 아래에서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 금지 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과 절차 등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지침 마련을 '시장 자율'에 맡긴 이상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정보 교류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였다.

▲ 은행·증권 트레이딩 보고라인 통합 여부 최대 관심

최대 관심사는 결국 은행과 증권사의 기능별 보고라인의 통합 여부다. 외국계 금융사 입장에선 차이니즈월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로 조직을 분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세일즈, 트레이딩 부서의 보고 라인을 통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세일즈, 트레이딩의 경우 인사, 재무 등 경영지원 부문과 달리 내밀한 고객 정보, 라이선스 문제가 걸려 있어 사안이 복잡하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일반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트레이딩 등 은행과 증권사 워킹 레벨에서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며 "특히 프런트데스크의 보고 라인을 기능에 따라 가져갈지 지역 단위 기반으로 가져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 만큼 업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부분이 외국계 금융사들 공통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회사별 조직개편 폭 편차 있을 것..금융당국 "업계에서 결정"

앞으로 외국계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조직과 직무 개편의 폭은 개별사마다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큰 폭의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은행과 증권사 간 의사소통의 개선, 향후 제재 리스크의 완화 등 차이니즈월 폐지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B 외국계 증권사 대표는 "은행과 증권사의 기능별로 통합 헤드를 둘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며 "FX스왑 같은 경우 그동안 은행과 증권이 둘 다 하면서 고객 문제나 정보공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마다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차이는 있을 것"이라며 "조직 변화보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검사 때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되 분명한 기준에 따른 정보공유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불편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공시해 관리하도록 했다"며 "은행과 증권사가 트레이딩 본부를 함께 운용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된 게 아니니 알아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금융사의 경우 어차피 해외에서 허용되지 않은 걸 국내에서 하려고 하면 자체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분명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걸 잘 지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외화예금 첫 1 천억달러 돌파..외환 수급에 미칠 영향과 함의

서울, 11월 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국내 외환 시장 수급 상황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급증하면서 사상 첫 1000억달러 문턱을 넘어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65.7억달러 급증한 1007.7억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초로 1000억달러대에 들어섰다. 이는 10월 말 외환보유액 규모 4692억달러와 비교하면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제 2의 외환보유액으로 꼽히기도 하는 외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웃돌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 연말 수급 무게중심 달라지나

10월 외화예금 증가분 중 대부분은 달러화 예금으로, 그 규모는 54억달러에 이른다.

한은은 이에 대해 기업의 달러/원 환율 상승 기대 등에 따른 현물환 매도 지연과 해외채권 발행, 또는 상환 예정 자금과 해외투자 자금 등 자본거래 관련 자금 예치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한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현물환 매도 지연에 따른 예금 증가분 비중이 좀 더 크다"고 말했다.

달러/원 환율은 10월 중순 1200원을 터치하는 등 한때 상승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지만, 10월 말에는 1160원대로 하락한 바 있다.

한편 10월에는 유로화 예금도 직전 월말 대비 5.5억달러 늘었는데, 기업들의 현물환 매도 축소 영향 등이 작용했다.

한은의 설명대로라면 환율 반등 때마다 유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은 확인됐고, 이 같은 수급 상황을 토대로 연말 환시 심리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환율이 오를 때마다 대기 매물이 들어오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물량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여지도 커졌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최근 보이지 않는 수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은근히 '오퍼리시'해졌다"라고 말했다.

▲ 외화예금 해석 달라져야

거주자들의 해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확대되면서 달러 수요가 크게 늘고, 그 결과 연중 달러/원 환율은 수출 호조에도 팽팽한 수급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글로벌 리스크 요인과 맞물릴 때는 환율 상승 변동성이 쉽게 확대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환시 수급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은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347.5억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215.3억달러에 비해 급증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업들의 해외 지분 인수 등 한층 활발해진 직접투자로 인해 달러 수요가 늘거나 원화로 환전되는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등 환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다.

10월 말 외화예금 통계에서도 기업들의 지연 전략에 따른 대기 성격의 자금 이외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채권 발행과 상환 자금 증가도 분명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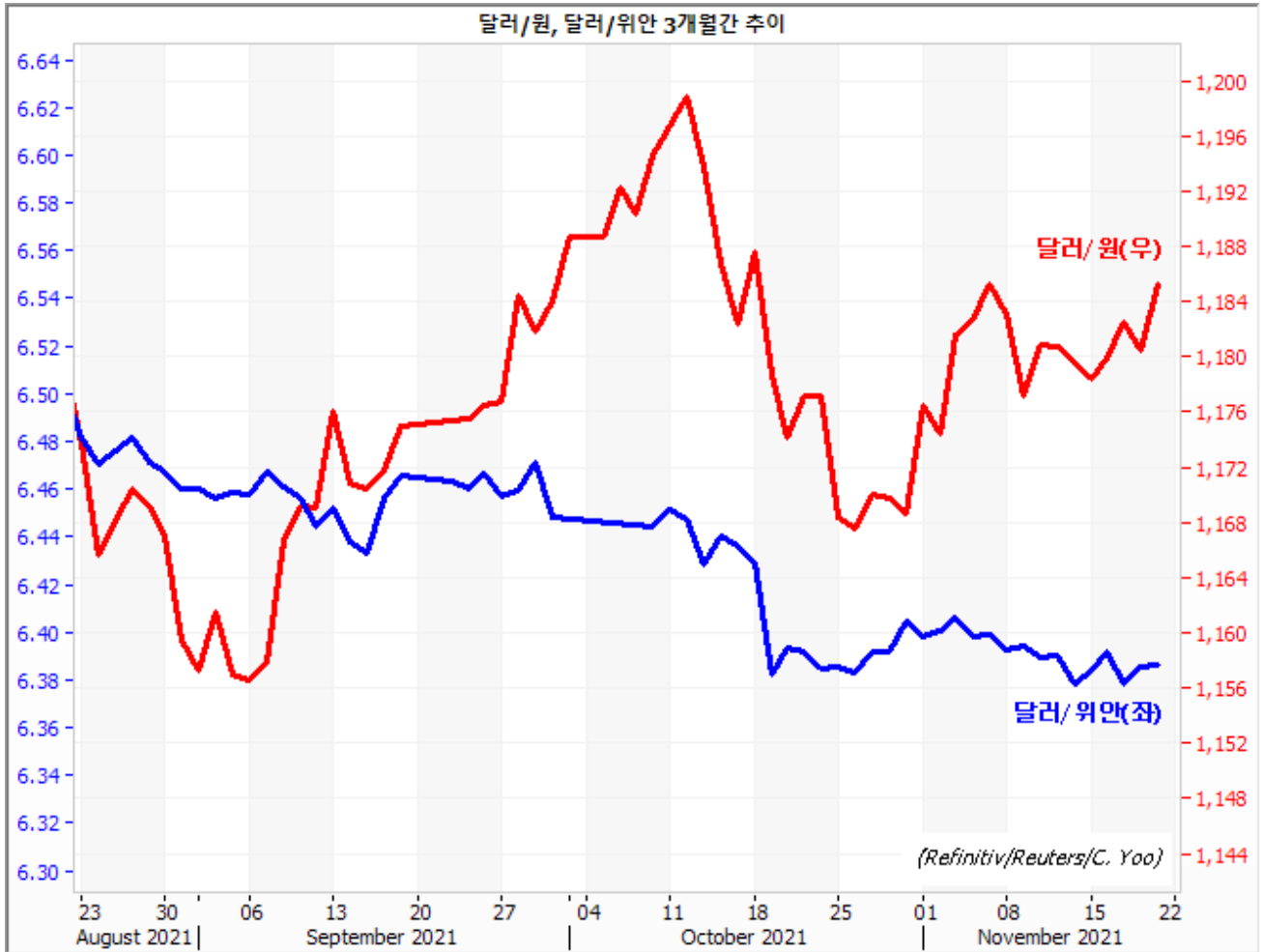
제 2의 외환 방파제로 간주되는 국내 외화예금 규모 확대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예전처럼 기업들의 환전 지연 효과에 따른 대기 자금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한 시장 관계자는 "해외투자 활성화 추세 속에서 수급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해외투자로 소득수지 흑자가 나는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환율에 미치는 수급 환경은 변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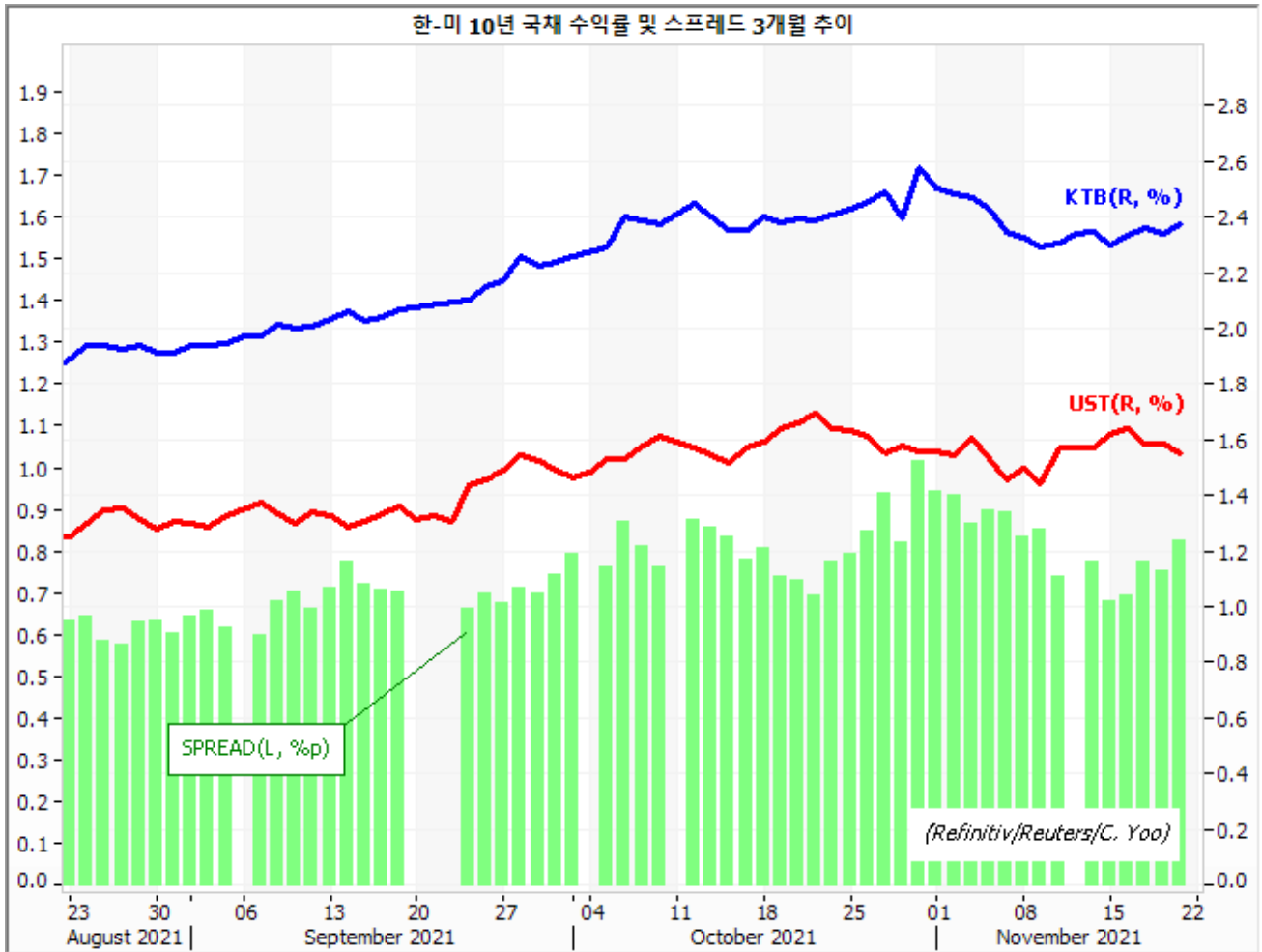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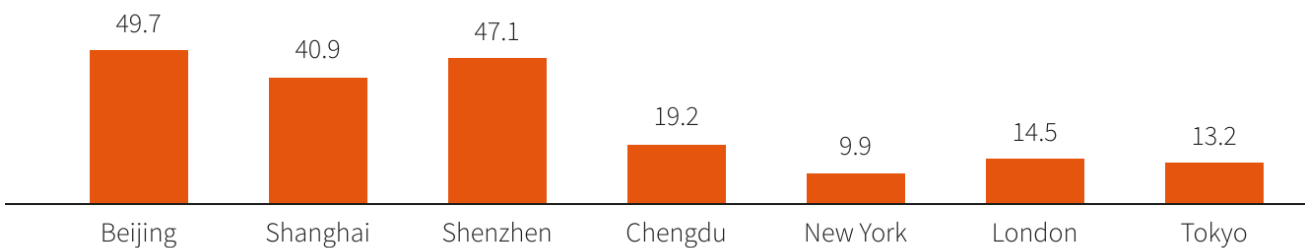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ost of housing in China's big cities far outstrips inco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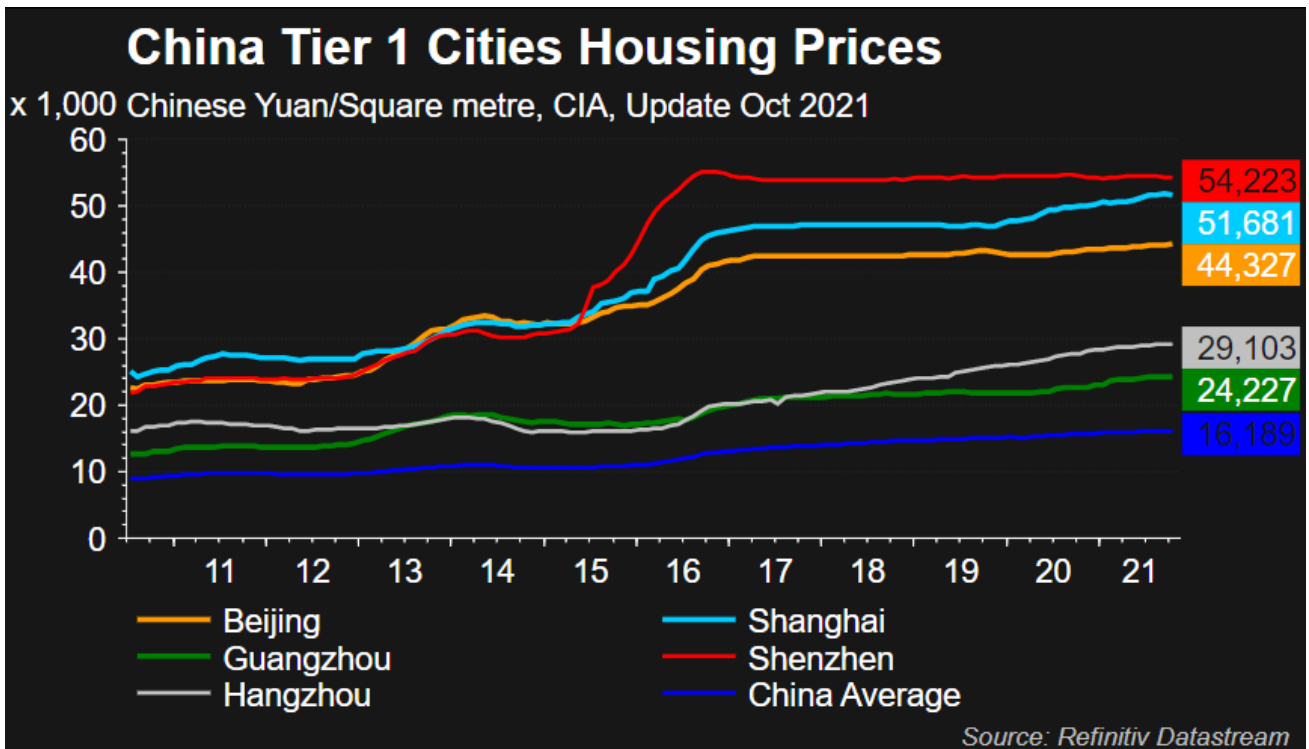
Years of saving at an average local salary that would be required to afford an average apartment



Note: Data shows the ratio of median apartment prices to median familial disposable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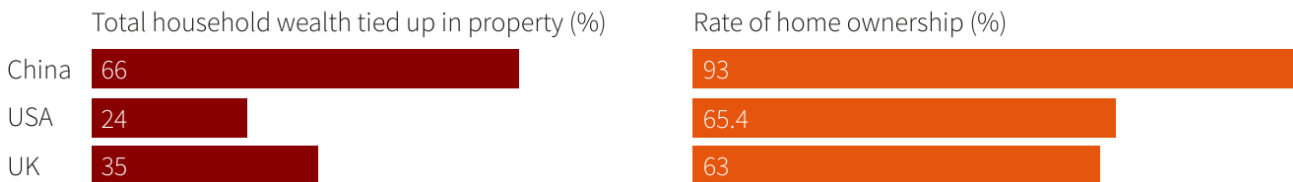
Source: Crowdsourced statistics provider Numbeo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hina's households put their wealth in real estate



Source: JP Morgan Asset Management,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hina Household Wealth Survey Report 2019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hina's real estate sector has global weight

Rough breakdown of contributions to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from:

● China: real estate and related industries (~4.5%) ● China: other sectors (~13.5%) ● Rest of world (~82%)



Note: Different sectors' contributions to growth vary over time

Source: Analyst estimate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